

CNI 세미나 2024-038

中國연구회 3차 세미나 광복절 특집

충남연구원 中國연구회 3차 세미나_광복절 특집

□ 행사 주제

- 박경철(『이화림회고록』의 역자)×박경현(뮤지컬 〈화림〉의 작가),
“중국 대륙을 누빈 불멸의 여성독립운동가 이화림을 말한다.”

□ 행사 목적

- 최근 영화 〈과묘〉와 뮤지컬 〈화림〉 등을 통해 조명되고 있는
여성독립운동가 이화림의 삶과 투쟁, 그리고 중국 내 항일독립
운동의 역사 재조명

□ 행사 개요

- 일시: 2024. 8. 14(수) 15:00-18:00
- 장소: 충남연구원 4층 회의실
- 주최: 충남연구원(중국연구회), 충남도청(국제협력팀)

□ 발표 및 토론 〈사회: 박경철 박사(본 연구회 회장)〉

- 제1부 박경철 박사: “이화림은 누구인가!”
- 제2부 박경현 작가: “나는 왜 이화림을 뮤지컬로 만들었는가!”
- 제3부 지정토론 및 자유토론—“항일의 역사, 어떻게 기억하고
알릴 것인가!”
 - 지정토론: 이원일PD, 자유토론: 회원 전체



□ 진행 순서

- 15:00-15:10 개회 및 소개—박경철 연구회장
- 15:10-16:00 제1부 “이화림은 누구인가!”—박경철 박사
- 16:00-16:50 제2부 “나는 왜 이화림을 뮤지컬로 만들었나!”—박경현 작가
- 16:50-17:50 제3부 지정토론 및 자유토론
- 17:50-18:00 정리 및 폐회—박경철 연구회장

목차

I. 이화림은 누구인가! 5

충남연구원 박경철 연구위원

II. 나는 왜 이화림을 뮤지컬로 만들었는가! 23

박경현 작가



I

이화림은 누구인가!

충남연구원 박경철 연구위원

이화림은 누구인가!¹⁾

박경철
충남연구원 연구위원



▲이화림 지사

(1905. 1. 5 - 1999. 2. 10)

<내용 요약>

이화림 지사는 1905년 1월 5일 평양에서 평범한 서민의 자식으로 태어나 3.1만세운동을 계기로 독립운동에 참여했다. 그 후에도 오빠들을 도와 독립운동을 계속하던 중 일경이 추적해 오자 오빠들이 먼저 떠난 중국으로 망명한 후 김구 선생의 비서로 한민애국단에서 활동했다.

역사의 중요 순간에 이화림 지사가 있었다. 윤봉길 의사의 홍커우공원 폭탄투척사건을 도왔고, 이봉창 열사가 일본천황 폭살을 위해 일본으로 갈 때 폭탄을 넣는 속옷고쟁이 주머니를 만들어 주기도 했다.

상하이 홍커우공원 폭탄투척사건 이후 독립운동이 소강상태에 들어가자 이화림 지사는 광둥의 중산대학에 가 간호학을 배웠고 이후 타이항산의 영웅 윤세주 열사와 약산 김원봉 선생의 이끌었던 조선의용대에 참여하며 난징, 충칭, 꾸이린, 타이항지구, 옌안 등 중국 전역을 돌며 독립투사들을 치료하고 그들과 그들 가족을 돌봤다.

옌안에서는 무정 장군의 권유로 중국의학대학에 편입해 의학공부를 하다 해방을 맞이했지만 하던 공부를 마저 해야 해서 옌안에 남았다. 의대를 졸업 후에는 중국 동북지역의 옌벤의학원 등에서 근무하며 아픈 사람들을 돌봤다.

그러던 중 한국전쟁이 나자 중국 정부는 “너희 나라에서 전쟁이 났으니 가서 사람을 돌

1) 이 글의 대부분의 내용과 사진은 이화림 지사의 자서전적인 책 <征途>(번역서: 이화림 회고록, 2015)를 참조해 요약 정리한 것이다.

보라”고 해서 북한군 의료지원단에 파견되어 위생소 소장으로 근무했다. 전쟁의 포화 속에서 부상당한 북한군들을 치료하다 본인도 결국 폭격을 당해 부상입고 다시 중국 선양으로 들어와 치료를 받다 다시는 조국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중국에 남게 되었다.

그 후 이화림 지사는 중국에 남아 중국 정부기관과 연변 조선족자치구에서 활동하며 조선인의 자립과 자치를 위해 일했다. 조선동포들은 그를 존경해 그는 연변 조선족자치주 당 대표까지 오르기도 했다. 하지만 갑작스레 닥친 문화대혁명으로 모든 것을 잃었다. 다행히 문혁이 끝나고 복권은 됐지만 이미 몸과 마음은 피폐해져 갔다.

중국정부에서는 이화림 지사를 환경이 좋은 다롄으로 보내 그곳에서 요양을 하며 노년을 보낼 수 있게 배려했다. 그곳에서 이화림 지사는 조선인사회의 원로로 여러 역할을 했으며 평생 모은 돈을 조선인 아동을 위해 기부했으며 다롄에서 남한과 북한을 바라보며 평생 조국의 통일과 번영을 희망했다. 그리고 1999년 2월 10일, 한 편의 대하드라마 같은 이화림 지사의 삶은 막을 내렸다.

다행히도 이화림 지사는 생의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평생의 독립운동의 역사를 기록한 <정도征途: 머나먼 여정>을 남겼다. 중국역사기록기관의 작가가 중국어로 기록한 이 회고록을 필자가 어렵게 찾아내 후배와 함께 번역해 2015년 <이화림회고록>이라는 제목으로 세상에 내놓게 되었다.

이화림 지사는 아직 독립운동 서훈을 받지 못하고 있다. 북한군으로 참전했다는 것이 걸림돌이 되었다. 하지만 이화림 지사가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고 의사로서 조국 병사의 생명을 구하는 본분을 다했을 뿐인데 못한 후손들은 아직도 이념의 잣대로 재단하고 있다. 우리가 저 시대에 태어났다면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 사람의 목숨을 구하는데 이념이 필요할까?

독립군을 토벌했던 박정희, 백선엽 등은 한국전쟁 이후 대통령도 하고 별도 달고 훈장도 달며 온갖 영화를 누렸는데 평생 목숨 바쳐 독립운동을 한 이화림 지사는 북한군으로 의료활동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우리 정부는 그녀에게 독립운동 서훈도 주지 않았다. 과연 이것이 역사 정의에 맞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비단 이화림 지사뿐만만의 문제는 아니다. 무수히 많은 독립지사들이 이념이라는 이유로 여성이라는 이유로 무관심과 차별 속에 묻혀버렸다. 이제는 다시 정의로운 역사를 만들어야 한다. 이화림 지사를 통해 우리나라 독립운동의 역사가 재조명되길 기대한다.

몇 가지 우연과 한 가지 필연

내가 중국 내 항일독립운동사, 그 중에서 조선의용대(군)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나와 관련된 몇 가지 우연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

첫째, 조선의열단, 조선민족혁명당, 조선의용대(군)의 리더였던 윤세주 열사는 1900년에 경남 밀양에서 태어나 1942년 5월, 중국 허베이성(河北省) 타이항산 항일근거지에서 일제의 소탕작전에 맞서 싸웠고 위기에 처한 팔로군과 조선의용군을 구출하였으나 결국 일제의 총탄을 맞고 그 해 6월 2일 순국했다. 그런데 나의 아버지는 윤세주 열사가 순국한 그 해인 1942년에 태어났고 필자는 윤세주 열사 탄생 70주년인 1970년에 태어났다. 그리고 나의 본관은 윤세주 열사의 고향인 밀성(밀양의 옛 이름)이다. 참 특별한 우연이 아닌가 싶다.

둘째, 1938년 10월 10일, 우한(武漢)에서 창설되어 충칭(重慶), 꾸이린(桂林), 뤼양(洛陽), 타이항산(太行山), 옌안(延安) 그리고 해방 후 동북지역 등에서 활동을 한 조선의용대(군)의 영문명은 “Korean Volunteers”였다. 그런데 내가 1995년 중국에 처음 갔을 때의 신분이 한국국제협력단(KOICA)에서 파견한 한국해외봉사단원(KOV)이었고 영문명이 “Korea Overseas Volunteer”였다. 우연한 일치인지는 모르겠지만 영문명을 보면 나는 조선의용대(군)의 후예라 할 수 있다. 시대가 변해 ‘Volunteer’에 대한 개념과 정의가 다르겠지만 나라 사랑과 인류애를 실천하고자 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는 것 같다. 알 수 없는 게 인생이지만 인생에는 이처럼 우연적인 요소가 더 삶을 지배하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셋째, 내가 해외봉사단원으로 1995년 7월 처음 중국을 밟았고 그곳의 명문대학인 베이징대학에서 2개월 간 어학연수를 하고 파견된 지역이 랴오닝성의 항구도시 다롄(大連)이었다. 나는 그곳의 농업과학연구소에서 1년간 일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내가 다롄에 있을 때 조선의용군 출신 독립운동가 이화림 지사가 그곳에서 마지막으로 여생을 보내고 계셨다. 이화림 지사는 다롄에서 여생을 보내시면서 당신의 자서전적인 <征途>를 남기시고 1999년 2월에 돌아가셨다. 그런데 이 <征途> 책을 윤세주 기념사업회에서 10여 년 동안 찾으려고 노력하다 결국 못 찾고 나에게 이 책을 찾아 줄 것을 부탁했다. 나는 베이징에서 박사학위 논문 작성 중에 인터넷 헌책방 사이트를 백방으로 뒤졌고 2012년 2월경에 결국 찾아냈다. 마지막 남은 한 권이었다. 이화림 지사의 친필서명이 남아있는 귀한 증정본을 내가 인터넷 헌책방에서 찾아 택배로 배송 받았을 때 나는 전을 같은 것을 느꼈다. 왜 이 책이 내 손에 들어온 것일까? 우연만으로는 설명될 수 없는 무언가가 있는 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했다.

나는 이 모든 과정이 우연 같은 필연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조선의용군, 그 중에서 조선의 여성으로서 중국 내에서 혁명의식이 강했고 맹렬히 싸웠고 중국에서 끝까지 남아 인도주의 정신을 실천하고 마지막에는 자신의 항일운동의 역사를 한 권의 책으로 남기고 떠난 이화림 지사의 삶에 대해 얘기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나는 이화림 지사에 대해 말해야 할 강한 필연을 느끼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화림 지사는 어떤 분일까?

이화림 지사의 출생과 가족환경

이화림 지사는 일제가 고종황제를 협박해 <을사보호조약>을 체결한 해인 1905년 1월 6일 조선 평양시 경창리(景昌里)의 한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다. 가족으로는 부모님 이외 오빠가 둘, 언니가 한 명으로 이화림 지사(어릴 적 이름은 春實)는 막내로 태어났다. 큰 오빠 춘성(春成)은 숭실중학을 다녔지만 2학년 때 가정 형편이 어려워 자퇴를 하고 여러 잡다한 일을 하며 가족의 생활에 보탬을 주었다. 둘째 오빠 춘식(春植)은 학교 문 앞에도 가보지 못했다. 언니는 학교에 가는 것은 생각지도 않았으며 15세에 시집을 갔다. 아버지 이지봉(李芝奉)은 고정된 일자리가 없어 수입도 일정하지 않았다. 어머니 김인봉(金仁奉)은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으며 미국인이 설립한 기독교당

에서 일을 했다. 이화림의 형제자매들은 집에 작은 양말제조 작업장을 차려 양말을 짜며 어렵게 생계를 이어갔다. 그 후 큰 오빠가 결혼 후 장인으로부터 목공기술을 배워 가정형편이 점점 나아지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큰 오빠는 어머니와 상의 후 이화림 지사를 학교에 보내기로 하는데 사실상 학교가 아니라 반 직업학교 성격의 학습반이었다. 이 소식을 아버지가 듣고는 “여자가 무슨 공부냐? 기다렸다가 열대여섯 살이 되면 시집이나 가면 될 것이지.” 하면서 반대를 했다. 하지만 이화림 지사의 어머니는 여자도 배워야 한다는 뜻을 굽히지 않아 그녀가 일하는 송현(崇賢)소학에 입학시켰다. 이 학교는 미국전도사가 설립한 기독교학교였다. 이화림 지사가 이 학교에 가서 가장 기뻐던 것 중 하나는 이 학교는 3학년부터 영어를 가르쳤기 때문이다. 다른 학교는 강제적으로 일본어를 가르쳤는데 그녀는 일본어 배우는 것을 죽도록 싫어했다. 당시 사람들은 일본어를 “왜화(倭話)”라고 비하하기도 했다.

국내에서의 항일 활동

3.1운동이 전국적으로 전개되던 그날 이화림 지사의 학교 또한 교장선생님이 전체 선생님과 학생을 데리고 평양의 송덕(崇德)학교 운동장에 집결했다. 여기에는 평양의 각급 소학교, 중등학교, 대학교 학생뿐만 아니라 기독교, 천도교 등 사회각계단체가 모두 참가했다. 사람들은 대회 전에 나눠준 태극기를 흔들며 태극기의 바다를 이뤘다. 그 후 3.1운동은 6월까지 3개월 동안 지속되었다. 전국 200여 시군에서 2,000여 차례 시위활동을 했고 모두 200만 여 명이 참여했다. 이때 일제는 3.1운동을 야만적으로 진압해 3개월 동안 무려 7,500명이 살해했고 16,000명에게 상해를 입혔으며 760곳의 사립학교 및 민간주택을 파괴하거나 훼손했다. 그래서 많은 애국운동가들은 일본의 진압을 피해 압록강을 넘어 중국으로가 투쟁을 계속했다.

이화림 지사의 가족은 국내에 남아 계속 독립운동에 참가하는 한편 어머니는 비밀리에 군자금 모으는 일을 했다. 왜냐면 비밀작업은 여자들에게 유리했기 때문이다. 한편, 오빠는 기독교 목사의 지하실에서 비밀리에 전단을 만들어 뿌리자 일본경찰들이 점점 검문과 단속을 강화하며 압박해 들어왔다.

1920년 이후 일본경찰들이 거의 매일 이화림 지사의 두 오빠들을 잡으러 왔기 때문에 두 오빠는 국내에서 독립운동을 할 수 없어 중국 동북으로 갔으며 나중에 조선 독립군에 참가를 했다. 아버지는 일본식민통치와 동란으로 인해 일자리를 찾을 수 없어 1923년 며느리와 손자를 데리고 같은 동북지역을 떠돌다 푸순(撫順)에서 일자리를 잡았다. 이화림 지사는 계속 공부를 하기 위해 어머니와 함께 국내에 남았으며 어머니의 도움으로 반 직업학교인 송의여자중학 유아반에 입학했다. 이 무렵 이화림 지사는 평양고등학교 학생 주체의 “역사문학연구회”에 비밀리에 참가해 활동하면서 틈틈이 <사회발전사>와 <러시아 10월혁명의 역사> 등을 공부하며 공산주의사회에 대해 이해했으며, 동시에 공산주의 실현만이 인민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했다. 하지만 어떻게 혁명투쟁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투명했다.

1927년 8월, 이화림 지사는 함경북도 청진시(淸津市) 기독교 유아원 근무할 때 김문국(金文國, 당시 숭실대학 학생)을 통해 소학교 교원인 엄 선생을 알게 되는데 그의 소개로 조선공산당(1925년 4월 17일 설립됨. 서기는 金在鳳)에 가입했다. 그러나 조선공산당 내부의 파벌 싸움이 심한데다가 조선공산당에 대한 일본식민당국의 수색이 심해지자 많은 공산당원들이 중국 동북의 항일운동에 참여했다. 그로 인해 조선공산당은 1928년에 해산됐고 일부 당원들은 지하활동으로 들어갔다. 따라서 이화림 지사도 아버지와 독립군인 오빠들이 있는 동북독립군을 찾아 동북으로 떠났다. 하지만 그곳도 일제의 침략이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었기 때문에 독립군을 찾기란 쉽지 않다. 다시 김문국의 소개에 따라 김두봉(金斗奉)이 있는 상하이로 떠났다.

상하이에서의 항일 활동

1930년 9월, 이화림 지사는 드디어 상하이에 도착을 해 당시 상하이조선교민소학의 교장이었던 김두봉 선생을 찾아갔다. 김두봉 선생은 부산 출신으로 1919년 3.1운동에 참가한 후 4월에 망명해 상하이로 온 후 신채호 선생의 <신대한신문>의 편집 일을 했고 이후 김규식의 신한청년당에 가입했다. 그 후 1921년에 상하이파 고려공산당에 가입했다. 1928년 12월 고려공산당이 해산되자 그는 다시 안창호의 <혁명이론비교연구회>에 참가했다. 김두봉 선생은 애국자일 뿐만 아니라 명망있는 혁명가이며 역사, 문학방면에 조예가 깊어 국내외에서 명성이 높았다. 그래서 많은 조선의 애국청년들이 중국으로 망명 후 그를 찾아왔다.

당시 상하이조선교민사회에서는 여러 독립운동조직과 인물들이 있었다. 1919년에서 1920년 가을 사이에 상하이에서 성립된 조선교민 애국단체로는 의열단, 대한객류민단, 신한청년단, 애국부인회, 구국모험단과 대한교육회 등이 있었고 1928년 3월에는 한국독립당, 1931년 3월에는 국우회(國友會)와 공평사(公平社)가 성립됐다.

이화림 지사는 김두봉 선생으로부터 상하이의 분위기와 교민들의 독립활동에 관한 소식들을 듣는 중 상하이 임시정부를 이끌고 있는 김구 선생이 실질적으로 상하이에서의 독립운동을 이끌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김두봉 선생에게 김구 선생의 소개를 부탁해 어렵게 성사된다. 이화림 지사가 처음으로 김구 선생을 알현할 때 그는 냉담했다고 한다. 여자라는 이유가 컸다. 이후 이화림 지사는 몇 차례 더 찾아가 김구 선생을 만나 뵙고 자신의 뜻을 표명하며 한민애국단에 가입시켜 줄 것을 간청했다. 그러자 김구 선생은 갑자기 이렇게 물었다.

“너의 조국은 어디인가?”

“나의 조국은 조선이고 평양시에서 자랐습니다.”라고 이화림 지사는 대답했다.

김두봉 선생의 말에 따르면 조선공산당원이었다면 “나의 조국은 소련입니다.”라고 대답했을 텐데 이화림 지사의 이와 같은 대답으로 공산주의를 믿지 않는 김구 선생이 이화림 지사에 대해 믿음을 갖도록 했다고 한다. 이후 이화림 지사는 김구선생의 비

서 역할을 하며 한인에국단과 함께 비밀리에 항일운동을 시작했다.



▲백범(白凡) 김구 선생과 한인에국단원(1932년 무렵)

(사진 출처: http://navercast.naver.com/contents.nhn?contents_id=5135)

그러던 어느 날, <의열단> 소속의 이봉창 의사가 김구 선생을 찾아와 자신이 일본 천황을 암살할 테니 도와달라는 요청을 해왔다. 매년 1월 8일에 일본천황이 요요기광장(代代木廣場)에서 열병식이 있으니 이 기회를 이용해 천황을 암살하겠다는 것이다. 이봉창 의사는 젊은 시절 일본으로 건너가 온갖 어려움 속에서 자립한 이후 다시 독립운동에 뜻을 두고 1930년 12월 상하이에 임시정부를 찾았다. 그의 외모와 언행이 일본인을 닮아 임시정부 사람들은 처음에 그를 의심했다. 왜냐하면, 당시 이봉창 의사가 상하이에 들어와서 처음에 인쇄공장에 다니다 나중에 일본악기점에서 일을 했기 때문이다. 음악방면에 천부적인 재능이 있었던 이봉창 의사는 다룰 수 있는 악기만도 12종이 되었고 일본노래도 잘 하고, 일본말도 잘 하고 얼굴도 잘 생겨 당시 상하이 지역 일본여성들이 그를 좋아했다고 한다. 하지만 그는 천상 조선사람이었고 독립운동에 대한 의지가 강했기 때문에 이를 물리치고 김구 선생을 찾아 상의를 했으며 결국 그의 뜻이 전달되어 함께 비밀작업을 진행했다.



◀일본천황을 저격하러 떠나기 전

태극기 앞에서 선서를 하고 있는 이봉창 의사

1931년 12월 13일, 이봉창 의사는 드디어 일본천황 암살준비를 마치고 일본으로

떠나기 전에 상하이한인애국단본부(안공근의 집)에서 한 손에는 수류탄을 쥐고 태극기 앞에서 선서를 했다. 일본으로 건너갈 때 수류탄을 속옷 고쟁이에 주머니를 만들어 넣어갔는데 이 주머니를 이화림 지사가 만들어 주었다. 하지만 1월 8일 아침, 일본천황이 황거 앞 이중교를 지날 때 이봉창 의사가 던진 수류탄은 마차의 지붕을 맞고 터지긴 했으나 위력이 약해 천황을 폭살하는 데는 실패했다. 이봉창 의사는 현장에서 즉각 체포가 되었으며 이후 일본고등법원의 판결을 받고 1932년 10월 10일 교수형에 처해졌다. 당시 일본신문들은 이와 같은 소식을 “韓人李奉昌狙擊日皇不中”이라고 전했는데 중국 매체에서는 여기에 “不幸不中”이라는 말로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다.

한편, 일제가 계락을 꾸며 1932년 1.28상하이사변을 일으켜 상하이를 대대적으로 공격하자 수세에 몰린 장제스(蔣介石)가 저항정책을 포기하고 그의 19로군(路軍)이 상하이지역을 철수하자 기세가 오른 일본침략자들은 “승리”를 자축하기 위해 천장절(일본천황의 생일)인 4월 29일 홍커우(虹口)공원에서 대대적인 기념행사와 열병식을 개최하기로 했다. 이러한 소식을 전해 듣고 김구 선생은 윤봉길 의사와 이화림 지사와 함께 일본침략자들을 처단하기 위해 계획을 세웠다. 당시 이화림 지사는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고 윤봉길 의사와 함께 일본침략자 처단활동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려고 했으나 김구 선생은 이화림 지사(당시 가명은 東海)가 일본어에 능숙하지 않아 사전에 발각될 염려가 있고 나중에 체포될 경우 한인애국단의 실체가 드러날 수 있으니 옆에서 돕기만 하라고 했다. 이화림 지사는 이에 수긍하고 사전에 윤봉길 의사와 일본인 부부로 위장해 홍커우공원을 정탐하며 폭탄저격계획을 치밀하게 준비했다.



▶상하이 홍커우공원 폭탄투척 전에
태극기 앞에서 선서를 하고 있는 윤봉길 의사

1932년 4월 29일 아침, 김구 선생은 윤봉길 의사와 시내 모처에서 만나 도시락폭탄과 물병폭탄을 전달하며 하나는 일본원수들을 죽이는데 쓰고 하나는 자신을 위해 쓰라고 했다. 윤봉길 의사는 김구 선생에게 “선생님 말씀 잘 따르겠습니다. 부디 조국을 위해 몸조심하십시오, 저는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김구 선생은 “나중에 구천에서 만나자구나”하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윤봉길 의사는 자신의 손목시계를 풀어 김구 선생에게 드리며, “몇 시간 후면 필요 없습니다.”라고 말하고 바로 홍커우공원으로 떠

났다. 이 때 이화림 지사는 김구 선생이 자신은 홍커우공원에 가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아침 일찍 홍커우공원입구 멀리서 윤봉길 의사가 오는 것을 기다렸다. 윤봉길 의사가 안전하게 홍커우공원에 들어가는 모습을 확인하고 계속 남아있으면서 공원 안쪽을 지켜봤다.

그날 11시경, 경축행사가 끝나고 각국 사절단이 떠난 후 일본인들끼리 자체적으로 경축행사를 할 무렵 이화림 지사는 안에서 거대한 폭발음을 들었다. 윤봉길 의사의 폭탄투척이 성공한 것이다. 이화림 지사는 그 광경을 보고 “마치 낙엽이 우수수 떨어지는 모습 같았다.”고 표현했다. 윤봉길 의사의 폭탄투척으로 상하이 일본거류민 단장이자 일본군편의대(便衣隊)대장인 가와하다(河端)(사망), 일본군총사령 시라카와(白川) 대장(사망), 일본제3함대사령관 노무라(野村) 중장(오른쪽 눈 적출), 일본최정예부대 제9사단 사단장 우에다(植田) 중장(한쪽 다리 절단), 일본주중국공사 시게고우(重光葵)(한쪽 다리 절단, 나중에 미국에 항복선언 서명), 주상하이총영사 무라이(村井)(중상) 등이 사상을 입었다.

이 폭탄투척사건은 중국,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커다란 충격을 준 사건이었다. 특히 중국인들에게는 커다란 자극이었으며 중국 장제스 등 정치인들이 조선 독립운동가들에게 독립자금을 적극 지원해주는 계기도 됐으나, 한편으로는 일제의 대대적인 탄압으로 독립운동이 소강기에 접어드는 계기가 되었다. 따라서 상하이에서 독립운동이 더 이상 어렵게 되자 이화림 지사는 김구 선생을 설득한 후 조선독립과 혁명을 꿈꾸는 청년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광저우(廣州)로 떠났다.

윤세주 열사와의 만남과 남방지역에서의 항일 활동

이화림 지사가 광저우로 떠나기 전에 김두봉 선생에게 작별인사를 하러 갔을 때 김두봉 선생은 이화림 지사에게 이두산(李斗山) 동지를 소개해줬다. 그래서 이화림 지사는 광저우 중산대학에 가 이두산 동지를 만났고 환영모임에서 이전에 김두봉 선생 집에서 만났던 김창국(金昌國) 동지를 만났다. 그는 상하이를 거쳐 광저우에 와 중산대학 법학과에서 공부하고 있었다. 이후 이두산 동지 등은 이화림 지사에게 일 자리를 알아봐주었고 반공반독(半工半讀)을 할 수 있는 중산대학 의학원 부속병원 견습간호사 자리를 알선해 주었다. 이때부터 이름을 이화림(李華林)으로 개명했다. 일을 하면서도 중산대학 학생들과 잦은 교류를 하였으며 이때 김창국과 깊은 교류를 한 끝에 1933년 봄에 살림을 차렸다. 결혼 후에도 약 80여 명이 되는 중산대학 조선인 학생들과 잦은 교류를 했는데 당시 중산대학에는 공산주의, 자본주의, 무정부주의 등 여러 계파의 활동들이 있었다. 이 무렵 이화림 지사는 여러 학생들 중에 중산대학 교육학과에 재학 중이며 이화림 지사와 같은 평양이 고향인 진광화(본명 金昌華) 동지를 알게 되어 그를 통해 <자본론>, <공산당선언>, <국가와 혁명> 등을 읽으며 학습을 이어나갔다.

그렇게 일과 학습, 그리고 가정을 꾸려가고 있었던 이화림 지사는 1935년 가을, 진광화 동지의 소개로 조선혁명가 광저우 집회에 참가해 <의열단>과 이후 1935년 7월

에 난징(南京)에서 창립된 조선민족혁명당(한국독립당, 조선의열단, 조선혁명당, 신한 독립당 그리고 미주대한인독립당이 연합해 만듦)의 리더인 석정 윤세주 동지의 강연을 듣고 그에게 깊은 감화를 받았고 이후 조선민족혁명당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됐다. 그러자 같은 해 겨울 조선민족혁명당총부(당주석 김규식, 총서기 김원봉)쪽에서 이화림 지사가 남경총부에 와서 근무할 것을 통지했다. 이러한 사실을 남편인 김창국에게 알리자 그는 자신이 공부에 아직 끝나지 않았고 아들 우성(雨星)도 어려 난징으로 가면 견디기 힘들 것이라며 반대했다. 하지만 이화림 지사는 자신이 중국에 온 목적은 작은 가정을 꾸리러 온 것이 아니라 조국의 독립과 해방을 위해 왔기 때문에 큰 혁명을 위해서는 작은 가정의 포기는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 김창국과 결국 이혼을 하고 난징으로 떠났다. 그곳에서 이화림 지사는 임철애(본명 朴次貞, 부산 출신으로 김원봉의 첫 번째 아내, 이후 1944년 5월 27일 충칭에서 타계) 등과 함께 부녀국에서 선전활동 등을 했다.



◀ 의열단, 조선민족혁명당과 조선의용군의 리더
윤세주 열사(1900. 6. 24 - 1942. 6. 2)
(사진 출처: 석정 윤세주 열사 기념사업회)

이 무렵 이화림 지사는 윤세주와 이춘암(李春巖) 등의 소개로 이집중(李集中, 본명 李鐘熙) 동지를 만나 재혼했다. 그는 나이가 좀 있었지만 이화림 지사는 그녀의 혁명 활동을 지지해준다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결혼 후 반년이 지나면서 그는 아내가 부녀국 활동에 너무 전념하는 것에 못마땅했고 나이 차이에서 오는 간극을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 둘은 헤어지게 됐다. 한편, 조선민족혁명당에서는 조선혁명군사정치간부학교(교장 김원봉)를 세워 조선에서 온 우수한 학생들을 모아 집중적으로 정치, 군사교육을 실시했다. 윤세주(1기 때는 학생, 2,3기 때는 교관으로 활동), 이육사, 정율성 등 항일정신이 투철한 200여 열혈청년이 이 학교를 다녔다.

그 후 1937년 7.7사변(일명 蘆溝橋사건)이 발생하자 공산당과 국민당은 제2차 국공합작을 실시해 항일을 위한 통일전선을 형성했다. 이에 영향을 받아 당시 중국과 미국 내에서 영향력이 큰 혁명단체인 조선민족혁명당, 조선민족해방운동자동맹, 조선혁명자동맹의 대표들이 같은 해 11월 난징에서 조선민족전선연맹을 성립하고 명칭, 규약, 강령과 선언 등을 통과시켰다. 그리고 당시 난징이 위기에 처하자 “연맹”은 우한(武漢)으로 이사를 해 12월 초에 한커우(漢口)에서 “연맹”(상무이사 김원봉)의 창립선언을 발표했다. 그리고 이때 중국공산당의 항일투쟁책략과 투쟁경험을 더 잘 학습하

기 위해 “연맹” 소속의 정율성(鄭律成), 이근산(李根山), 호철명(胡哲明), 로명(魯明) 등을 연안에 파견했다.

한편, 1937년 겨울 난징을 출발한 조선민족혁명당의 전체 부녀동지, 노약자, 어린이들은 한커우, 이창(宜昌)을 지나 천신만고 끝에 1938년 봄에 충칭(重慶)에 도착했다. 그곳에서 이화림 지사는 중산대학 부속병원에서 배운 의료경험을 토대로 의료활동을 하던 어느 날 김구 선생의 모친이 병으로 별세하면서 다시 상봉하게 된다. 모친상을 마친 후 김구 선생은 이화림 지사와 지난 날에 대해 얘기를 하고 헤어질 때 이렇게 물었다.

“동해(이화림 지사의 상하이시절 가명)야, 너 아직도 공산주의자냐? 공산주의를 믿느냐?”

“저는 공산주의를 믿습니다. 저는 공산주의자입니다!” 이화림 지사는 자랑스럽게 회답했다.

“그럼 우리 앞으로 다시는 만나지 말자구나!”

그 후 이화림 지사와 김구 선생은 같은 충칭지역에 있으면서도 더 이상 만나지 않았다. 그 만큼 독립운동단체들의 각 계파 간 갈등이 심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938년 충칭 시절의 이화림 지사

조선의용대 참가와 타이항산에서의 항일 활동

조선민족전선연맹 성립 후 조선혁명무장부대 설립에 관한 문제에 대해 중국측과 협의한 결과 국민당정부의 지원으로 조선의용대(대장 김원봉)가 1938년 10월 10일 한커우에서 창립됐고 약 140명의 젊은 청년들이 여기에 참가했다. 하지만 그 해 11월 일제가 우한지역까지 진공하자 조선의용대는 충칭과 꾸이린(桂林), 산시성(山西省)으로 퇴각했다. 이후 조선의용대는 일부가 충칭에 남고 나머지는 타이항산 팔로군거지에

가기 위해 뤼양(洛陽)에서 모여 뜨거운 상봉의 감격을 나누고 난 다음 다시 험난한 여정을 거쳐 1941년 5월에 드디어 타이항산지역에 도착했다. 조선의용대가 타이항산에 도착하자 팔로군전선사령부 펑더화이(彭德懷) 사령관, 뤼루이칭(羅瑞卿) 주임 등이 친히 환영대회에 출석해 맞아주었다. 하지만 그 해 12월 26일 싹타이(邢台)부근 위안스(元氏)현 후자좡(胡家庄)에서 29명의 조선의용대 대원이 팔로군의 정치활동을 도와 군중대회를 열어 주민들에게 일본의 소탕작전에 잘 대비할 것을 선전하던 중 500여 일본군이 포위해 오자 그들과 전투를 벌였다. 하지만 전투 중에 손일봉, 최철호, 왕현덕, 전학무, 박철동, 이현순, 이만용 대원(확일 필요. 일반적으로는 손일봉, 최철호, 박철동, 이정순 네 분이 전사했다고 알려짐)이 장렬히 전사했고, 김세일 대원은 어깨가 부러졌으며 김학철 대원은 다리부상을 입는 등 큰 손실을 입었다.

▶ 타이항산 항일근거지 반소탕작전 중 부상을 입은 조선의용군 대원을 치료하는 이화림 지사



그 후, 1942년 5월, 일본군 수십만이 팔로군을 섬멸하기 위해 타이항산지구로 쳐들어왔다. 당시 이곳의 팔로군과 조선의용군은 6만여 명으로 절대적 열세였다. 5월 상순, 개전이 시작되었고 5월 29일에 조선의용군과 팔로군이 일본군에 포위되고 말았다. 그러자 팔로군 사령부는 조선의용군이 일본이 점령한 두 산봉우리를 뚫고 포위된 동지들에게 돌파구를 마련할 것을 명령했다. 그래서 조선의용군 박효삼(朴孝三) 사령관은 부하들을 이끌고 야간을 틈타 일본군과 격전을 벌인 끝에 퇴로를 뚫었다. 하지만 이 퇴로를 따라 나오던 팔로군전선참모장 좌취안(左權) 장군이 그 자리에서 전사하고 조선의용군 진광화, 윤세주 열사는 일본군의 총탄을 맞고 도피하다 타이항산지구 좡즈링(莊子嶺) 일대 동굴에서 6월 2일 결국 전사했다.

1942년 9월 18일 타이항산에서는 후자좡과 타이항산에서 전사한 11명의 열사에 대한 장례식을 치렀는데 이 때 주더(朱德) 총사령관이 무대에 올라 애도를 했고, 예젠잉(葉劍英), 샤오산(肖三) 등도 신문에 애도의 글을 남겼다. 특히 저명한 시인 아이칭(艾靑)은 타이항산 전투에서 희생된 조선의용군 열사를 위해 다음과 같은 시로 애도를 표했다.

*“사랑하는 전우들이 떠났습니다.
당신들은 중국의 반침략전쟁에서 희생됐고,
당신들의 희생은 우리의 영광을 드높였습니다.*

사랑하는 전우들이여,
 이제 편안한 안식을 맞이하기 바랍니다.
 따뜻한 햇볕과 구름이 당신들의 묘지를 어루만질 것입니다.
 우리는 당신들의 이름을 깃발로 삼아,
 나아가 당신들을 위해 복수하고,
 나아가 적들을 섬멸할 것입니다.”



▲ 팔로군과 연합해 일제의 소탕작전에 맞서 싸우다
 장렬히 전사한 조선의용군
 석정 윤세주 열사(우), 진광화 열사의 묘지(좌)
 (이후 유해는 1950년 10월 허베이성 한단시 혁명열사릉으로 이장함)

한편, 조선의용군 여성대원들과 부녀자들은 전투와 선전활동 이외의 시간에는 산채 등을 캐서 반찬 만들어 조선의용군들에게 제공했다. 그래서 매일 같이 산으로 가서 각종 산채, 버섯 등을 채취했다. 특히 1942년에는 이곳에 극심한 가뭄이 들어 조선의 용군과 부녀자들은 직접 산을 개간해 작물을 심어 자급자족을 해야 했다. 그리고 이곳에는 소금이 매우 귀해 얻을 수가 없고 염기성이 많은 돌을 갈아 산채에 비벼 먹었다. 그 당시 산에서 가장 많이 채취했던 산채는 돌미나리였다. 이화림 지사는 거의 매일 산에 가 돌미나리를 캐 때면 자신도 모르게 저절로 조선의 민요 <도라지타령>이 생각나 부르곤 했는데 <도라지타령>의 가사를 바꿔 이렇게 불렀다고 한다.

미나리, 미나리, 돌미나리
 타이항산골짜기의 돌미나리
 한두 뿌리만 캐어도
 광주리에 가득차누나.
 애해요, 애해요, 애-해요,
 우리의 근거지, 너무도 사랑스러워,
 우리의 타이항산 너무도 아름다워.

옌안에서의 항일 활동과 해방

1943년 12월, 조선의용군총부(대장 무정)는 중국공산당 중앙위가 조선의용군의 일부를 제외하고 모두 옌안으로 이주해 훈련을 받으라는 옌안 공산당지도부의 결정에 관한 통지를 전달한다. 옌안은 앞으로 조선의용군 군정대학을 설립해 교육과 훈련을 시킬 계획이라는 것이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조선의용군 중국 공산당 혁명의 성지인 옌안에 갈 수 있다는 것에 무척 고무되었다. 그리고 곧 짐을 꾸려 옌안으로 출발했고 그 이전에 옌안에서 온 조선의용대 출신 정율성 등이 호위하며 험난한 길을 걸었다. 그리고 천신만고 끝에 1944년 4월 7일에 바오타산(寶塔山)이 있는 옌안에 도착했다. 그곳에서 중국공산당의 도움으로 토지, 자금, 생산도구 등의 문제를 해결해 뤼자핑(羅家坪)에 군정학교를 세우고 예배당과 요동(窯洞)을 만들었다. 그리고 자력갱생의 원칙하에 조선의용군은 대원들 스스로 인근 산을 개간하고 농사를 짓고 산채를 캐 저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먹는 문제를 해결해야 했다.

군정학교에서는 군사, 정치과목 이외에 군중활동, 특히 생산 활동에도 전념했다. 주요 학습내용은 조선민족의 역사와 문화, 일본제국주의 침략조선의 죄악의 역사와 그 현상, 일본통치하의 조선인민의 생활상황과 조선민족의 해방투쟁의 현황 및 전도, 국제형세와 조선민족독립운동의 관계 그리고 일본필패와 조선필승의 원인 등이었다. 또한, 마르크스주의의 계급투쟁학설, 무산계급전정(專政)학설, 정당학설 그리고 중국공산당의 군사이론과 실제작전경험 등을 학습했다.

그러던 어느 날 무정 장군이 이화림 지사에게 의학대학에 가 의학을 공부할 것을 권유하며 이미 학교 당국과 협의를 마쳤다고 전했다. 이화림 지사는 이전에 광저우 중산대학에서 간호학을 공부한 적이 있었는데 이후 공부를 다 마치지 못해 아쉬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무정 장군의 제안에 적극 찬성했다. 그래서 1945년 초 이화림 지사는 김화(金華) 동지와 함께 옌안의 중국의과대학에 제20기 학생으로 입학해 의학 공부를 시작했다.

의학 공부에 열중하던 이화림 지사는 1945년 8월 15일 저녁, 일본이 투항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 이 소식은 옌안 전체로 퍼졌고 그날 저녁 옌안 전체가 기쁨에 불야성을 이뤘고 그 분위기는 다음날 오전까지 이어졌다. 8월 16일 오후, 이화림 지사는 의과대학에서 5km 떨어진 뤼자핑으로 달려갔다. 그곳에는 전체 조선의용군 전사들이 군정학교 운동장에서 조선한복을 입고 명절을 보내듯 노래하고 춤을 추며 해방의 기쁨을 나누고 있었다. 이때 이화림 지사가 그곳에 도착하자 조선의용군들은 이화림 지사의 이름을 외치며 껴안고 기쁨을 함께 나누었다. 이 순간 이화림 지사는 타 이항산에서 희생된 진광화, 윤세주, 손일봉 열사를 생각하며 그 분들이 이곳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며 기쁨과 아쉬움의 눈물을 흘렸다.

해방과 6.25전쟁 참전

해방은 조선의용군에게 기쁨을 가져왔지만 한편으로는 큰 변화를 가져왔다. 해방 이후 조선의용군은 북진을 통해 조선반도로 진입을 준비하는 한편으로는 그곳의 팔로군

과 연합해 국민당군과 해방전쟁을 벌이는 데 참전한다. 하지만 이화림 지사는 조선의 용군의 복진에 참여하지 않고 연안에 남아 계속 의학공부를 했고 1947년에 졸업한 후 현재 연변의학원의 전신인 중국의학대학 제1분교에 배치되어 근무했다.

그러던 중 1950년 6.25전쟁이 발발했고 이화림 지사는 중국인민지원군으로 참전해 북한으로 들어갔다. 북한에 들어가서는 조선인민군 제6군단 위생소 소장을 맡으며 부상자 치료활동을 전개했다. 그러던 중 미군의 폭격으로 다리에 부상을 입어 더 이상 활동을 할 수 없게 되어 다시 연변으로 복귀했다. 그리고 휴전과 함께 이화림 지사는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중국에 남게 되었다.

중국 내에서의 활동

1952년 여름, 이화림 지사는 선양에 있는 인민지원군 후근부총부에 갔는데 그곳 상부에서 이화림 지사에게 2등 을급 잔폐증(殘廢證: 장애인등록증)을 발급해 주어 다시 지원군으로 6.25전쟁에 참전할 계획을 포기했다. 그 후, 이화림 지사는 군인병원인 라오닝성 와팡덴(瓦房店) 캉푸(康復)병원 기술과 과장을 역임했고, 1953년에는 선양의사(醫士)학교 부교장을 역임했다. 1954년에는 다시 지린성 위생청 부녀아동과에서 근무를 했으며 1955년에는 교통부 위생처 기술과 과장을 역임했다. 1955년 9월에는 당의 요청으로 중앙당교에서 공부를 하기도 했으며, 1956년 7월에 졸업 후 다시 교통부 위생기술과에서 일했다. 그 후 상급 당의 요청으로 이화림 지사는 연변조선족자치주 위생국 부국장과 국장, 연변계획생육판공실 주임, 연변위생학교 교장, 연변자치주 인민대표, 연변주 당대표, 정협상무위원 등을 역임했다.



◀중공중앙당교 재학 시절(1955년 9월 - 1956년 7월) 이화림 지사(가운데)

하지만 1966년 문화대혁명이 발발해 홍위병으로부터 정치적 박해를 받게 됐다. 1970년에는 57간부학교에 보내져 고된 노역을 하며 고통스런 시간을 보냈다. 심지어 돼지우리 같은 곳에서 생활하며 힘든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하지만 타이항산 항일 전투를 생각하며 힘겨운 시간을 이겨냈다. 그 후 1978년 중앙조직부 판공실의 왕 주임이 연변 시찰 중 이화림 지사를 만난 뒤 문혁 때의 받았던 상처가 크기 때문에 환경과 기후가 좋은 다롄에 가 퇴직을 준비하고 그곳에서 휴양할 것을 권유해 이화림 지사는 다롄으로 갔다. 그 해 다롄으로 간 이화림 지사는 그곳에서 다롄시 시찰실 시

찰원과 다렌시정협 상무위원, 조선족노년협회 명예회장을 역임을 역임하기도 했다. 1984년에 퇴직한 후 그곳에 남아 생활하면서 평생 생활비를 아껴 모은 돈 2만 위안을 국가에 헌납하고, 1986년에는 연변조선조자치주의 미래 발전을 위해 연변아동문학상기금회에 1만2천 위안을 기부했다.



◀1985년 5월 5일 중국작가협회연변분회 아동문학상기금회에 1.2만 위안을 기부하고 제2회 화림신인문학상 수상대회에 참가해 아동작가에게 상장과 상금을 수여하는 이화림 지사

이화림 지사는 그녀의 자서전 격인 <征途>의 마지막에서, “나는 우리의 국가가 번영 창성하길 바라며, 멀지 않아 조선이 평화통일이 되길 희망하며, 미래가 더 찬란하고 더 아름답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 후 이화림 지사는 1999년 2월 향년 95세로 세상을 떠났다. 그녀의 전 재산 5만 위안은 유언에 따라 다렌시 조선족학교에 기부됐다.

좌우를 넘어 기억해야할 숭고한 우리의 역사

이화림 지사는 일제침략 초기 조선 평양의 가난한 가정의 막내로 참여해 3.1운동을 경험한 후 조국의 독립과 해방을 위해 중국으로 건너와 상하이에서 김구 선생을 도와 이봉창, 윤봉길 의사의 폭탄투척사건에 참여했다. 이후 상하이지역 독립활동이 소강상태에 들어가자 광저우 중산대학에 가서 공부도 하고 가정도 꾸렸으나 혁명에 대한 의지를 꺾지 않고 마침 광저우에 찾아온 조선민족혁명당의 윤세주 열사의 강연에 감화를 받고 홀로 난징으로 가 항일활동을 전개했다. 이후 조선의용대(군)에 참여해 우한, 충칭을 거쳐 타이항산, 옌안 등지에서 험난한 항일활동과 학습활동을 했다. 해방 이후에는 선양, 옌벤 등 동북지역에서 의료관련 활동을 했으며 6.25전쟁 때는 중국인민지원군의 요청으로 조선인민군 제6군단 위생소 소장으로 참여해 인도적 차원에서 부상병들을 치료하는 활동을 전개했다. 하지만 전쟁 시기 미군의 폭격으로 부상을 당해 다시 옌벤으로 돌아왔고 한국전쟁이 휴전으로 들어가자 다시는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평생 중국에 남게 되었다.

그 후 이화림 지사는 조선인을 위한 의료활동과 정치활동을 전개하며 조선인의 위생과 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1966년부터 시작된 문화대혁명의 풍파는 그녀를 비껴가지 않았다. 이 시기 이화림 지사는 온갖 박해를 받아 큰 상처를 입기도 했다. 다행히 문화대혁명이 끝난 후 복권되어 다시 활동을 재기했고 마지막 여생은 다

렌에서 보내다 그곳에서 95세의 길고 험난했던 생을 마쳤다.

이화림 지사의 삶은 실로 우리나라 독립운동사의 대하드라마이자 아프고 굴곡진 우리 근현대사의 아리랑이라고 할 수 있다. 소위 좌와 우를 넘어, 조선의 독립과 자유해방을 위해 때론 불꽃을 피운 혁명가이자, 때론 의학을 배워 아픈 사람들을 구제하고자 했던 인도주의 실천가이기도 했다. 이처럼 강직하고 고결하게 살다간 조선의 강한 여인 이화림 지사에 대해 우리 역사는 여전히 외면하고 있다. 민족의 스승이라는 김구 선생도 이화림 지사와 함께 이봉창, 윤봉길 의사의 거사를 함께 꾸미고 실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백범일지>에 이화림 지사에 대해서는 한 마디 언급이 없다. 이념이 다르면 서로 배척해 버렸던 우리 근현대사의 굴절을 보면, 과연 이념이 뭔지, 사상이 뭔지에 대해 다시 한 번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인간에 대한 예의와 존엄이 없는 이념과 사상은 결코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이화림 지사에 대한 평가는 좌와 우를 떠나 이제 정당하게 평가되어야 한다. 공산주의자였고 조선인민군 위생소장으로 6.25전쟁에도 참전했지만 나라를 잃은 조선의 한 여인으로서 역사의 매 순간마다 불어닥친 온갖 고난과 역경에 당당히 맞서 평생을 조국의 독립과 해방 그리고 인민의 구제에 헌신했다. 훗날의 편향된 정치와 이념의 잣대로 함부로 재단되어서는 결코 안 될 일이다.

왜 우리는 닥터 노만 베순과 체 게바라같은 인물은 잘 알면서 이화림은 모르는 것일까? 그래도 되는 것일까? 이화림 지사의 진실된 삶과 강인한 정신은 이제는 다시 조명되고 선양되어야 할 것이다. 일제로부터 해방된 조국에서 살고 있는 우리 세대가 당연히 표해야 할 예의이자 의무라고 생각한다. 강인하고 고결했던 자랑스런 조선의 여성독립운동가이자 인도주의 실천 의사였던 이화림 지사의 삶에 감사와 경의를 표하고자 한다.

II

**나는 왜 이화림을
뮤지컬로 만들었는가!**

박경현 작가

나는 왜 이화림을 뮤지컬로 만들었는가!

박경현 작가

초기 영화 기획안(23년 07월 ver.) 중 발췌

☞ 로그라인

1932년 동양의 파리 상하이. 사변과 항일 거사의 중심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있었고, 그 곁에 한 여성이 있었다.

춘실, 동해, 그리고 화림. 세 이름으로 격변의 시대를 살아낸 그녀를 통해 바라본 독립투사들의 평범하고도 비범한 삶에 대한 이야기.

☞ 주제

꿈을 꾸는 과정은 가끔 소용없는 짓처럼 느껴지지만 그렇지 않다. 소용없어 보이는 순간 하나하나가 모여 개인의 운명이 되고 시대의 필연이 된다.

☞ 형식/장르 장편 시나리오(110분) / 시대극, 드라마, 액션.

☞ 작의

2) “백선생의 여비서가 이봉창, 윤남산 의거를 가까이서 도왔다.

하지만 백범 일지에는 기록되지 않았다.”

본 작품은 이 한 줄의 기록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이 얼굴 없는 여성, 이화림이라는 인물을 조사하며 한국인이란 누구냐 알고 있는 위대한 독립투사 이봉창, 윤남산, 그리고 백선생의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1932년 당시 이들은 모두 자신의 희생이 대한의 독립을 가져올 수 없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다. 어릴 적 위인전에서 봤던 이들은 의연하고, 담대한, 확신에 찬 미소를 짓고 있었는데! 충격이었다. 어떤 마음을 가져야 전혀 소용없을 일을 위해 하나뿐인 목숨을 바칠 수 있을까?

2023년을 살아가는 나는 감히 그들이 꿈을 꾸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본다. 배를 굶고, 몸이 아파도 포기할 수 없는, 또한 배부르고 등 따뜻해도 이것 없이는 사는 게 사는 것이 아닌 것, 꿈. 우리가 ‘독립운동’으로 뭉뚱그려 알고 있는 하나하나의 발자취들은 그런 꿈이었던 것 아닐까. 대한 사람이 대한 사람으로 살 수 있는 세상, 사랑하는 사람과 영원히 함께할 수 있는 세상, 사람이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세상을 향한 꿈. 이 지점에서 90여년 전, 상하이에서의 이야기가 2023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겠다고 생각해 본 작품을 썼다.

스물여덟, 나와 동갑내기 친구인 동해가 흔들리고 부서져도 꿈을 꾸기를 멈추지 않는 모습을 통해, 극중 인물들의 꿈이 이뤄진 세상에서 여전히 각자의 꿈을 꾸며 살고 있는 우

2) <나의 친구 윤남산>(2017, 김광, 선인출판사)

리들에게 응원과 지지를 보내고 싶다. 또한 동해를 중심으로 저마다의 생을 씬 없이 살아
냈으나, 아쉽게도 알려지지 않은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존재를 재조명하고자 한다.

☞ 23년 2월 뮤지컬 <화림> 기획안 중 발췌

주제 삶은 죽음보다 위대하다. 꿈 꾸는 삶은 더욱 위대하다.

작의 죽음은 삶의 순간이지 않은가. 위대한 한 순간에 가려져 있던, 지리멸렬하고 사소
해도 지속되어 온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다. 삶은 한 번의 거사가 아니라, 아주 많은
사소한 순간들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 참고 : 24년 7월 DIMF 리딩공연 작품소개서(프로그램 리플렛) 내용

제18회 DIMF 공연소개서_양식		
공 연 명	국문 : 화림	
	영문 : In the name of FOREST	
단 체 명	국문	(프로젝트) 칠성
	영문	(project) Chil-seong
공연문의	hwalim2024@gmail.com	
제작노트 * 오타, 맞춤법 확인 및 평어체 사용 요망		
“백범의 여비서가 이봉창, 윤봉길 의거를 가까이서 도왔다. 하지만 백범일지에는 기록되지 못했다.”³⁾		
시놉시스 * 오타 및 한글 맞춤법 확인요망		
“이런 얘기가 무슨 선전이 된다고 배우를 8명이나 써?!” 1941년 중일전쟁의 최전방 태항산, 새로 부임한 상사 이화림은 세주가 쓴 선전극을 결사 반 대한다. 하지만 공연을 위해 입대한 열혈 배우 칠성은 이대로 포기할 수 없다. 적진의 지도를 걸고 당돌한 거래를 제안하는데… 그렇게 지도를 인질 잡힌 화림은 한글을 모르는 칠성에게 대본을 읽어준다. 1919년 경성의 춘실은 부모님처럼 멋진 독립투사가 되고자 만세시위를 돕고, 1932년 상하이의 간호사 동해는 봉창의 속옷을 꿰매줬다가 항일 거사에 휘말린다. 화림의 목소리는 칠성의 가슴 속 불씨가 되어 그를 적진 한가운데로 인도하는데… 화림이 숨겨야만 했던 진짜 결말이 드러난다. 세 가지 이름으로 이뤄낸 하나의 대의 - 뮤지컬 <화림>의 막이 오른다. 을사년에 태어난 슬픈 이름의 소녀가 대의 앞에 모두를 잃어도 살아남아야 했던 이유, 세 가지 이름으로 추구한 한 가지 사소한 대의에 대한 극이다.		

윤세주가 시작해 장칠성이 완성했다.			
캐릭터(등장인물) ex) 아해役_Joanna Carpenter			
* 프로필 사진 별도 첨부 필수			
캐릭터명(국문)	캐릭터명(영문)	배우이름(국문)	배우이름(영문)
화림	Hwa-lim	임찬민	Chan-min Lim
동해	Dong-hae	최지수	Ji-su Choi
칠성	Chil-seong	홍유정	Yu-jeong Hong
남산	Nam-san	유환	Yu-hwan
춘실	Chun-sil	허다연	Da-yeon Heo
봉창/세주	Bong-chang /Sae-joo	김선오	Seon-oh Kim
진홍/백선생	Jin-hong /Mr.Baek	우상준	Sang-jun Woo
사라	Sa-ra	나민영	Min-yeong Na
제작진 및 스태프 * 프로그램북에 포함될 전 스태프 기재			
역할(국문)	역할(영문)	이름(국문)	이름(영문)
작가	Book and Lyrics	박경현	Gyeong-hyeon Park
작곡가	Music	김민석	Min-seok Kim
연출	Director	김민성, 박경현	Min-seong Kim, Gyeong-hyeon Park
편곡	Arrangement	김민석, 이세림	Min-seok Kim, Se-rim Lee
홍보마케팅	Marketing	심채영	Chae-yeong Shim
역사자문	Historical Advisor	유튜브 역사돋보 기 이영	(youtube)@historycreator
연주자			
역할(국문)	역할(영문)	이름(국문)	영문(영문)

봄을 잃고(春失) 바다를 꿈꾸다(東海) 숲이 된 여인(化林),
이화림의 삶에서 모티브를 얻은 새로운 K-Faction 뮤지컬.

❁ 세 개의 시공간을 넘나드는 대서사시

1919년 경성의 춘실, 1932년 상하이의 동해, 1941년 태항산의 화림을, 공통된 음악과 서사를 통해 자유롭게 오간다.

돌림노래처럼 반복되는 절망 속에서 노래하는 ‘삶’

세 명으로 분한 한 여인의 삶에서 상실과 절망이 반복된다. 그럼에도 늘 ‘사랑하는 이들을 살리고 함께 살아내기’를 선택하는 인물들을 통해 결국 희망을 노래한다. 죽음보다 위대한 삶을 노래한다.

3) (<나의 친구 윤봉길>, 김광, 2017, 선인출판사)

그리고 또 다른 ‘이화림’을 위하여

“이런다고 조선이 독립하지 않는다는 확신”을 갖고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동하는” 이들의 모습은 꿈을 꾸는 우리들과 다르지 않다. 허황하게만 보였던 그들의 꿈이 이뤄진 지금의 대한민국, 각자의 자리에서 꿈을 꾸다 극장으로 모인 이들을 위해 바친다.

- 2023년 스토리움(한국콘텐츠진흥원) 추천스토리 선정 심사평 -

“숨겨진 여성 독립운동가를 스토리화하는 의미 있는 작업. 미화하지 않고 현실적으로 표현, 높은 몰입감으로 대중들의 많은 관심을 이끌어낼 것으로 예상”

- 2023 쇼케이스 관람객 추천사 -

“암울했던 시대에 빛이었던 여인에 관한 이야기로, 뮤지컬이 끝나도 진한 여운을 느끼고 싶은 관객에게 추천한다.” (이하나 작가)

“차가웠던 시대를 뜨겁고 치열하게 살아낸 이름도, 나이도 다른 세 여자의 이야기, 촘촘한 스토리와 매력적인 넘버로 매 순간 집중하게 만드는 극이다.” (박지은 작가)

“여러 단계의 시간선을 거치며 만남과 헤어짐을 통해 주체적인 여성으로 성장하는 3개의 완전한 독립기” (이원일 PD)

“어두운 시대, 언제나 대의를 택했던 이의 불꽃처럼 피어오르는 조각들” (장상희 작가)

- Special Thanks To -

“시대를 넘나들고 캐릭터들이 시시각각 변하는, 첫 도전치고는 어려운 길. 그러나 이들은 작은 씨앗을 함부로 뽑아내지 않고 여기까지 지켜오며 발전시켜 왔다. 그것만으로 이들의 달리기는 박수받아 충분하다. 대학로의 블루칩이 될 경현 작가와 민석 작곡가의 첫걸음을 응원합니다. <화림> 화이팅!” (다미로 작곡가)

“뮤지컬 <화림>의 첫 공연이 어떨지는 아직 모릅니다. 그러나 그 첫 공연을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을 달려왔는지는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단단한 인물을 단단한 뮤지컬로 만들기 위해 단단한 시간을 거쳐온 단단한 창작자들의 단단한 뮤지컬 <화림>을 응원합니다!” (오세혁 작가)

☞ 여태까지의 발자취

- 20년 초 : MBC 아카데미에서 영화 프로듀서를 꿈꾸던 박경현 작가와 다큐멘터리 프로듀서를 꿈꾸던 시네편 이원일 PD가 만남.
- 23년 3월 : 삼일절 무렵 이원일 PD와 대화 중, 생각보다 알려지지 않은 많은 여성독립운동가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나눔. 이때 이원일 PD가 “내가 알고 있는 인물 중 가장 저평가된 인물, 가장 영화화하고 싶은 인물”로 이화림 지사를 말함. 당시 박경현 작가는 엔터테인먼트 및 IT 기업에서 퇴사 후 방향 중이었고, 이원일 PD는 EBS 다큐멘터리 수입배급 부서에서 일하다가 프리랜서로 전향 중이었음. “내가 쓰고 당신이 배급하자. 내가 작가하고 당신이 PD하자”는 결심으로 박경현 작가가 자료 조사에 돌입.
- 23년 4월-6월 : ‘이화림’에 대해 찾을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수집, 검토하기 시작. 교과서에서 배웠던 ‘독립투사’의 이미지와 전혀 상반된 모습에 깊은 감명을 받고, “소용없는

것처럼 보여도 멈출 수 없는 일, 꿈을 꾸는 일”이라는 주제를 선정. 시나리오 초고 집필 시작.

- 24년 7월-10월 : 세 가지 시대, 세 가지 이름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무대화. 이화림이라는 한 인물을 춘실/동해/화림 이라는 세 인물로 분화시켜 뮤지컬 대본 작성. 김민석 작곡가를 만나 넘버 작업 착수. 최초의 넘버는 ‘남산도 동해도’, 그리고 ‘마중’이었다.

* **일화:** 김민석 작곡가는 뮤지컬을 처음 도전하는 상황이었음. 그에 비해 <화림>이라는 작품이 너무 완성도 높고 큰 작품이라고 생각, 거절하려고 했음. 하지만 “봄은 잃어버려도 바다는 늘 그 자리에”라는 가사에 깊은 감명을 받아 함께 도전하기로 결심해 줌. 따라서 이하는 모두 김민석 작곡가와 동행한 발자취임.

- 24년 12월 : 15분 리딩 쇼케이스. DIMF 아카데미의 배우 과정 수강생 나민영, 류은설, 최효민 배우와 함께 3인극으로 쇼케이스함.
- 24년 1월 : 스토리움(한국콘텐츠진흥원)의 추천스토리 선정. 컨설턴트(뮤지컬 제작사 컬처홀릭 대표)의 조언을 참고하여 9인극 140분(인터미션 포함)으로 확장 개발. 신인으로서 처음부터 ‘중극장 이상’에 가야만 하는 작품을 개발하는 것에 대한 커다란 부담감이 있어 소극장에 작품을 옥여넣고 싶었지만, “작품마다 어울리는 사이즈가 있다. 소극장에서 초연이 잘 되면 좋겠지만 흥행하지 못할 경우 오히려 먼 길을 돌아가게 될 수도 있다”는 컨설턴트 진영섭 대표의 조언에 따라 결심을 굳힘.
- 24년 4월 : 제 18회 DIMF 뮤지컬 인큐베이팅 사업 선정. 예산은 500만원. 신인의 패기로 앞뒤 안 가리고 지원했으나, 막상 선정되고 나니 예산이 지나치게 적어 난관 봉착. 다행히 DIMF 아카데미 동기이자 뛰어난 공연 창작자 김민성 연출이 단돈 25만원에 도와주기로 하여 어떻게든 해보기로 결심.
- 24년 4월-5월 : 극단이나 제작사를 낀 다른 팀들과 달리 스텝이라고는 박경현 작가, 김민석 작곡가, 김민성 연출 셋 뿐이라, 각각 일당백으로 뛰어다니기 시작함. 공개 오디션과 캐스팅, 연습실 대관 등 프로덕션 기능을 하면서 동시에 작가/작곡가는 각각 대본과 음악을 완성시켰음. 그 결과 임찬민, 유환, 홍유정, 최지수, 나민영, 허다연, 우상준, 김선오 총 8명의 배우들과 함께 5월 말부터 연습 시작.
- 24년 5월-6월 : 연습을 진행하며 홍보마케팅 병행. 포스터와 온라인 게시용 이미지 모두 작가의 죽마고우 심채영 디자이너가 재능기부로 만들어줌. 연습실과 녹음은 작가의 전직장 대표이자 존경하는 음향 감독 황권익 감독이 무상으로 지원해줌. 이원일 PD는 역사 자문으로 대본을 수시로 점검해주었음.

* **연습 일화 :** 첫 런스루 결과 러닝타임이 57분에 육박. DIMF에서 제한하는 시간은 40분이었음. 이를 맞추기 위해 대대적인 수정과 뼈를 깎는 삭제 과정이 있었음. 작가는 “내가 더 빨리 썼어야 하는데”하며 미안해했고, 작곡가는 “내가 더 준비해줬어야 하는데”하며 미안해했고, 연출은 “내가 작업 스케줄을 당겼어야 하는데”하며 미안해하다가, 시간이 없어 서로 미안해하기를 멈추고 할 일을 해냈음.

- 24년 6월-7월 : 제작비 고갈 이슈 발생. 배우들이 사비로 교통편을 해결하고, 헤어 메이크업 의상과 소품을 준비해주었다. 공연 당일 배포한 기념 엽서에 혹시나 하는 마음에 후원 계좌를 기입해두었는데, 지인들이 삼삼오오 후원금을 내줘서 결국 지원받은 예산의 10% 미만 초과하며 공연을 성황리에 마무리 함.
- * DIMF 심사위원 심사평 : 5개 팀 중 가장 돋보였다. 선정과 공연까지 단 3개월 동안 가장 많이 노력한 흔적이 보였고, 우려했던 ‘무대화 가능성’을 해결해 보여줬다. 하지만 여전히 작품 사이즈가 8인극 중극장 이상으로 크다 보니, 투자/제작처를 찾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디벨롭한다면 군무지컬 등으로 활로를 찾아 볼 수 있을 것.
- 24년 7월 이후 : 내년 서울에서의 전체(90분 이상) 리딩 공연을 목표로 작품 개발에 착수. 여전히 불분명한 작품의 미래가 불안하기도 하지만, 우리 팀의 목표는 그저 발표가 아니라 ‘상업화’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은 더 좋은 대본 더 좋은 넘버를 만들어내는 것이라 생각. 조금만 휴식하고 각자 차기작을 통해 한껏 성장해서 <화림>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함.

[illegible]

[illegible]